



배포 일시 2025. 3. 4. (화)

담당자

즉시 보도 가능

임지웅 사무국장 010-7546-8648
진우성 공보국장 010-2017-0584

[성명] 대학등록금 인상, 35만 대학생의 1,550억 장학금이 증발했습니다

- “고물가, 고환율, 고등록금” 새로운 대학생 삼중고
- 피해는 학생들만, 35만 대학생 장학금 1,550억 증발

“우린 빚쟁이야”, 대학가에 자조적인 말이 돌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인상된 등록금 때문입니다.

개강을 앞둔 설렘은 사라졌습니다. 높아진 등록금을 버티기 힘들어진 학생들은 오히려 본가로 돌아가기까지 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등록금.

우리 대학생들은 새로운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종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학 중 79.5%, 국공립대학 중 28.2%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대학본부 차원의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각 대학 총학생회가 자구적인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본부측 논리’에 의한, 일방적

인상 단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학본부는 강압적이었고, 정부는 무능했습니다.

모든 피해는 학생들만 지게 되었습니다.

등록금 동결을 조건으로 지급하던 국가장학금 II 유형 장학금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국회 정을호 의원실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미지급되는 장학금 총액은 무려 1,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명수로는 35만 명에 달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장학금 보전 계획은 미비합니다. 등록금 인상에 공세적이던 각 대학은 장학금 보전에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상 심의 과정에서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급 조건 완화라는, 전혀 실효성 없는 방안을 제시했고 예측대로 무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국회에서 교육부는 현황 조사 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미 사립대학 과반이 인상을 확정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한가한 소리입니다.

인상 강행과 교육부의 무능 앞에, 학생들 허리만 휘어잡니다.

대학 재정난 원인은 학생들이 아닙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과 연대하겠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등록금, 대학생 삼중고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